

**Appendix 1.** Students' comments on the effect of recorded video monitoring

<자기 녹화 영상 모니터링의 유용성에 대한 대표적인 학생 서술내용>

- "자신이 모르던 행동을 알 수 있었다. 좋은 피드백이었다."
- "자신의 영상을 직접 보아서 좋았다. 생각지도 못한 습관이나 장 단점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."
- "다음에도 비교한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다."
- "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좋았고 잘못된 습관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."
- "두 가지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피드백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."
- "본인 스스로에게 큰 경험이 된 것 같고 좋은 시스템에서 훌륭한 트레이닝을 받고 국시준비를 해 좋다."
- "피드백을 통해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CPX (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), OSCE (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)를 학교에서 모의로 더 많이 해본다면 실제로 시험 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."

**Appendix 2.** Students' comments on self reflection of patient-physician interaction

<환자-의사와의 관계 성찰에 대한 대표적인 서술내용>

- "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며 급하게 보이지 않도록 말투에 신경 쓰며 시간관리를 위해 연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
- "환자와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화, 눈 맞춤을 원활하게 못한 것 같다."
- "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적절히 하였으나 중간중간 환자의 말을 요약하고 질문기회를 주지 못하였다."
- "환자의 말에 공감하거나 대꾸해주지 못했고 눈 맞춤이 없었으며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."
- "OO전과/요인 등 의학용어를 사용해 환자의 이해에 혼란을 주었던 것 같다. 환자의 입장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해 휴직 등 부담을 주는 상담을 한 것 같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좀 더 부드럽게 환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더 발전할 것 같다."
- "환자가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컸고 너무 병력청취에만 신경 쓴 것 같아서 환자의 주소가 뭔지,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눈 맞춤이 필요했다. 자신감이 더 필요하고 환자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."
- "(표준화) 환자분은, (내가) 무엇을 못 물어보는 것보다 전반적인 느낌, 자세, 자신감, 신뢰감, 편안함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물론 진단도 중요하지만 눈 맞춤, 전반적인 신뢰감 가는 흐름에 더 중점을 뒀야 할 것 같다."
- "전반적으로 환자에게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할 때 환자를 배려하지 못하였다.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이나 예의 바르고 조심성 있는 방향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. 환자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많이 부족했다. 표면적으로도 공감을 덜 했고 중간중간 '아 힘드셨겠어요'라는 말은 했지만 그것이 진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공감하며 진료한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다. 조금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."
- "PPI (patient-physician interaction)를 어떻게 쌓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."
- "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, 의사처럼 진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고 앞으로는 공감형성과 유대관계에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."